

투데이

옛 전남도청 150m × 19m 대형 예술옷

광주문화재단, 지역작가 20명 설치미술 추진

대형천에 남도민의 삶·정서 고스란히 담아

아시아문화전당 건립 공사가 진행 중인 옛 전남도청에 호남 사람들의 생활과 음식, 정서가 담긴 대형 그림이 설치된다.

광주문화재단(이하 재단)은 24일 “지역 작가들이 길이 150m의 대형 천에 함께 그린 그림을 옛 전남도청 보존 공사 현장에 설치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에는 윤남웅·박문종·권승찬·신양호·고재근·조승기·홍희란·김영선·김성우·민문화·박자연씨 등 대인시장에 작업실을 두고 있는 지역 작가 20명이 참여한다. 이들은 ‘일상의 색깔’(가제)을 주제로

길이 150m, 높이 19m의 대형 그림을 합쳐 옛 전남도청 건물 전체를 둘러싸는 차단막을 설치하게 된다.

윤남웅씨는 “남도민의 정서와 색깔, 삶이 담겨 있는 다양한 모습을 보여 줄 것이며 우리가 먹는 흥어, 갈치 등 음식과 생활을 작품에 고스란히 담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참여 작가들의 특성을 한 눈에 알 수 있도록 각별로 쪼개 그림을 그린 뒤 모자이크처럼 이어 붙여 전체 작품을 완성할 계획이다. 작업 모습은 하나의 퍼포먼스 형태로 일반 시민에게도 공개된다.

재단은 25일 참여 작가를 모두 선



옛 전남도청 건물 정면에 지역작가 20명이 남도민의 삶과 정서를 담아 그린 대형 예술 기림막이 설치된다.

정한 뒤 오는 26~27일 아시아문화마루(크루스트랄레 광주)에서 워크숍을 거쳐 5월7일부터 제작에 들어가 5월 18일 이전에 작업을 마칠 계획이다.

모든 작업은 참여 작가들의 ‘합작’을 통해 이뤄진다. 과거 단원 김

홍도와 김득신 등 대형 유명 화가 10명이 그린 ‘고산구곡담총도’(1803)처럼, 작가들이 워크숍을 통해 작품의 주제와 소재 등을 정한 뒤 함께 그림을 그리게 된다.

재단 관계자는 “광주의 새로운 상

징이 될 아시아문화전당에 대한 시민의 관심을 높이고, 옛 전남도청이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의 핵심 공간으로 재탄생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062-670-7431.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명량대첩 민초 의병 후손 찾습니다”

전남도 6월말까지 조사

400여년 전 명량대첩 해상전투에 참전했던 민초 의병과 수군 선열의 후손찾기 사업이 추진된다.

24일 전남도에 따르면 10월 열리는 ‘2011 명량대첩 축제’를 앞두고 명량해전에서 전사한 민초들의 한국정신을 기리기 위해 참전 후손을 축제에 초청하기로 하고 6월말까지 이들의 후손 찾기에 나서기로 했다.

전남도는 옛 문헌에 기록된 민초 의병 양승지와 미하수, 정충량, 김

세호의 후손과 함께 이순신 장군 부하 장수인 안위, 송여종, 나대용, 김억주 등의 후손도 함께 찾기로 했다. 전남도는 이를 위해 자체 조사를 벌이는 한편, 해남군과 진도군 지역 문화원과 향토사학자가 참여한 조사반을 운영할 방침이다.

명량해전 참전 후손들에 대해서는 올해 명량대첩 축제에 초청해 관람은 물론 해전 재현, 평화의 현화, 정유재란 유적답사 등 축제의 주요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지율기자 dok2000@

광주에 322억 투입 하이테크 금형센터 구축

지식경제부와 협약…제품 다양·납품기간 단축 기대

광주시는 24일 “지식경제부와 ‘하이테크 금형센터 구축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금형산업의 고부가 가치화를 위해 하이테크 기반 조성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광주시와 지식경제부는 이번 협약을 통해 오는 2013년까지 322억원을 투입, 광주시 광산구 월전동에 하이테크 금형센터를 짓고 연구개발 및

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광주시는 하이테크 금형센터가 구축될 경우 대형 및 정밀가공분야의 시제품 생산이나 시험평가가 가능해져 다양한 제품생산은 물론 납품기간 단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지역 내 금형업체는 300여 개 사로 지난해 매출은 모두 9319억원(내수 6855억원, 수출 2464억원)에 달한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무안 구제역 의심신고 ‘음성’

전남도는 최근 무안 지역 돼지농기의 구제역 의심신고에 대한 병성감정을 실시한 결과, ‘음성’으로 확인됐다고 23일 밝혔다.

이 농가는 지난 21일 돼지 20여마리의 유두에서 상처가 발견돼 방역당국에 신고했다. 전남도는 당일 해당 농가에 방역관을 파견해 신고 내용 등을 포함한 이상 증세를 조사했으며 유두 이상 이외의 별다른 구제역 의심증세를 발견하지 못했다. 전남도는 그러나 최근 경북 영천에서 구제역이 다시 발생함에 따라 유두 이상 증세를 보인 해당 농가들의 시료를 재취해 구제역 감염 여부를 조사해 ‘음성’으로 확인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무인의 경우는 의심증만 한 구제역 증상이 없어 자체 혈청검사를 조치했다”고 말했다.

/김지율기자 dok2000@kwangju.co.kr

광주 김치축제·고양 꽃축제 협력

광주시는 24일 “광주세계김치문화축제와 경기도 고양시의 대표 축제인 한국 고양 꽃전시회가 상호 성공개최를 위해 물적·인적 협력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성 고양시장은 최근 꽃 전시회 홍보단 30여명과 함께 꽃 회전 1000개와 홍보불을 광주 시민들에게 나눠주는 등 광주에서 꽃 전시회 홍보활동을 펼쳤으며 강운태 광주시장장을 만나 축제 협력을 약속한 바 있다.

고양시가 주최하는 제16회 한국고양꽃전시회는 ‘동서 양꽃들의 매혹적인 만남’을 주제로 오는 9일부터 5월 15일 까지 고양시 호수공원에서 개최되며, 광주세계김치문화축제는 ‘천년의 맛, 세계인과 함께’라는 주제로 오는 10월 12일부터 19일까지 광주시 북구 중화공원 일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시 통상사절단 美서 투자유치 활동



산기반 구축을 위한 공동 연구개발 협력 협약 체결 등 기업 및 투자유치 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대미 통상활동은 지역기업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광운데 시장(사진)을 단장으로 한 광주시 통상사절단이 25일부터 5월 1일까지 미국 로스앤젤레스와 샌프란시스코, 포틀랜드 등을 방문한다.

통상사절단은 이번 방문기간 동안 미국 CBS 전광판 교체 프로젝트 수주 계약에 이어 (주)오토데스크와 공동 연구센터 구축, 수소연료전지 분야 세계적 기업인 클리어에지파워사와 생

뉴스 브리핑

구제역 확진 판정 등 33개 사무 시·도 이양

대통령 소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는 23일 구제역 겸사시료 채취와 겸사시료 정밀검사기능을 시도와 국가가 공동 수행토록 하는 등 10개 기관 33개 사무를 시·도로 넘기기로 했다고 밝혔다.

6~7월부터 대출 최고금리 39%로 인하

금융위원회는 22일 모든 금융회사에 대부업자에게 적용되는 최고 대출금리를 연 44%에서 39%로 5%포인트 낮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 달 12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6~7월 공포되는 즉시 적용된다고 금융위는 밝혔다.

서울서 여수박람회 성공 다짐 마라톤대회

2012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는 전국해양산업총연합회와 공동으로 제16회 바다의 날 마라톤 대회를 다음달 28일 서울 상암동 월드컵경기장에서 개최한다.

여수박람회의 성공개최 기원과 바다의 날(5월 31일)을 기념해 열리는 이번 대회는 22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참가 신청을 받는다. 월드컵공원 평화의 광장을 출발~성산대교~양화대교~마포대교를 왕복하는 코스로, 폴코스(42.195km)과 5km, 10km, 하프 등이다. 문의는 홈페이지(www.badamarathon.com)를 참고하면 된다. /김지율기자 dok2000@

10분내 심근경색 진단장비 국내 첫 개발

심장 막바의 과정을 이용해 10분만에 심근경색이나 협심증 여부를 가려낼 수 있는 의료장비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개발됐다.

의료기기 제조업체인 씨이루메디는 심장 부위의 피부에 붙이는 8개 센서를 통해 심박출량과 심혈관 동맥류를 원리를 이용했다.

헬류 속도, 혈류 저항 등을 계산해 심근경색이나 협심증 발병위험을 진단할 수 있는 장비 ‘코로나이자’를 개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개발된 코로나이자는 혈관이 막혀 있으면 막파의 형태가 변하고 전파 속도 빨라진다는 원리를 이용했다. /연합뉴스

“국립묘지서도 자연장 가능” 법률 개정

국립묘지에서도 유골을 나무와 화초, 잔디 아래에 묻는 ‘자연장(自然葬)’이 가능해진다.

국가보훈처는 22일 국립묘지 조성 근거와 시설·구조·설치 기준 등을 담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립묘지에서 자연장이 가능하도록 별도의 시설을 조성하도록 했다. 자연장의 1기당 면적은 1㎡를 초과할 수 없다. /연합뉴스

광주시 ‘테마가 있는 음식 명가’ 7곳 선정

광주시가 독특한 메뉴를 내놓거나 조리의 달인이 근무하는 식당 또는 전품명품을 소장하는 등 자랑거리가 있는 지역 내 7개 업소를 ‘테마가 있는 음식 명가’로 선정했다.

24일 광주시에 따르면 동구 지산동 ‘시에테밸리’와 운림동 ‘나비야청산가자’, 소래동 ‘관가’, 서구 농성동 ‘가매 일식’, 남구 봉신동 ‘정자꽃’, 북구 용

두동 ‘초유자’, 광산구 ‘송오당’ 등 7곳을 ‘테마가 있는 음식명가’로 지정해 행·재정적인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이들 업소들은 최근 서울 AT센터에서 개최된 한국음식관광박람회에 공동으로 참가해 한국국제요리경연 대회 전시경연 부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을 수상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농업인 구합니다!

도시근교 농장에 숙식을 하며 농사일을 할 봄을 찾습니다!

모집인원 0명

근무일수 주 1회 휴무(평일)

근무조건

숙식가능자, 농사일 유경험자 우대
경운기 작동 가능자

근무장소 전남 화순군 앙남리

급여 면접 후 결정

접수방법 팩스접수 / 방문접수

복리후생 4대보험 가입, 숙식제공

접수기간 채용시까지

제출서류 이력서, 주민등본 1통

연락처 062)651-8871

FAX 062)652-8866

서광타워(주)

공무원 특별자금

- ◆ 대출대상 | 공무원, 교직원, 군무원
- ◆ 대출금액 | 2백만~4천만원(무보증·무담보/무조회)
- ◆ 대출금리 | 1년 6%정도(천만원 월이자 5만원선)
- ◆ 대출기간 | 1년 ~10년(본인 선택 연장 가능)
- ◆ 과다대출 | 연체(등급미달)자도 해당

고금리 대출 이용 중 이시면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세요!

부동산 담보 대출

국민금융 대표 1544-9430 담당 010-5554-2100

공무원 대출

무방문 · 무담보 · 무보증 · 무조회/기록

- ① 대상 - 공무원, 군무원, 교직원
- ② 금액 - 2백만 ~ 4천만원(추가대출 가능)
- ③ 금리 - 연 5%~7%(천만원 월이자 5만원 미만)
- ④ 기간 - 1년~10년(퇴직기간까지 연장 가능, 본인선택)
- ⑤ 사금융이용자 제1금융권으로 전환기능(과다대출 포함)

APT
담보대출
한도 : KB시세~80%+a
(60%)
금리 : 연 3.93%~

전세권
담보대출
한도 : 보증금의~80%
금리 : 연 5.9%~

★ 개인신용도에 따라 금리 및 대출비율은 변동 될 수 있음★

한국금융 대표 1544-5248 | 담당 010-7112-3135

자사 보유 부동산 매각 공고

위치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23-20번지
23-154, 23-216, 23-218, 23-272, 23-283, 23-284, 73-38 (계 4,787㎡)

용도 일반상업지역

현 상태 인도 조건(지하 6층 구조물 준재)

문의 02)6908-7021, 7024 (인사총무팀)

*참조 : 공시지가 ₩1,130,000~ ₩1,320,000/m²

신원종합개발(주) www.swc.co.kr